

# 모바일 금융으로 언제 어디서나 재테크를 한다!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 기능과 모바일 증권 트레이딩 기능은 이제 낯선 개념이 아니다. 그 기능들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 알아? 주식거래도 하고?' 라고 말을 건네면 '당연히 되는 거 아냐?' 라고 반문해 온다. TV 모바일 뱅킹 CF에 익숙해진 탓일까? 아니면, 모바일 만능시대이다 보니 모든 게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일까? 이번호에서는 '당연한' 개념인 모바일 금융을 다뤄 보고자 한다. 아직 모바일 금융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몇몇 사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당연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 진일보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을 남들보다 일찍 접하고 이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중** 합주가지수가 1200 포인트를 넘고 있다.(본 잡지가 나온 시점에서 1200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을지, 아니면 훌쩍 뛰어넘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200 포인트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IMF 직후인 1998년 6월 277 포인트로 땅바닥을 짚은 적 있었던 주식시장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860선에서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주식시장이, 이제 1,000 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어 1,200 포인트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 주식 재테크를 눈치보지 않고 하는 요령

증권은 마치 남의 일인 냥 생각하던 사람들조차도, 뉴스에 나오는 주가 상승 소식을 접하고 나면 웬지 자기 혼자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밤낮없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세금 떼인 후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보면서 '어느 세월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내집 장만을 할 수 있을까' 헤아려보면 한숨부터 앞선다.

막상 부동산을 구매할 정도의 대규모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몇 백만원 단위에서 몇 천만원 단위 정도인 경우에 쉽게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투자다. 주식 투자 역시 제로섬(Zero Sum) 게임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게임이긴 하지만, 최근과 같은 활황증시에서는 누구나 쉽게 장미빛으로 붉게 도배된 증권 전광판을 꿈꾸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증권회사에 나가 주식 현황판을 마주하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무실에서 눈칫밥 먹으며 주식시세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얼마 정도 투자해 놓은 주식의 현재가와 추세는 어떤지 궁금하기는 하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고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이 경우 언제 어디서나 주변 눈치보지 않고 나만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정답은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

모바일을 활용하면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조회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잠시 용무를 보면서도 주식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으며, 거래처에 외근을 나가는 길에서도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해 있는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주식 현황이 궁금해서 외근나간 틈을 타서 객장에 들르고, PC방에서 홈트레이딩을 하기 위해 개인인증서를 USB 메모리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현재 시세와 매도 매수가격 등을 음성으로 듣고 판단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 현대인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

현대 생활에 있어 금융 서비스를 떠나서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은행 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안방에 쌓아놓고 살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한두 군데 이상의 은행에 계좌를 열어 돈을 저축하거나 입금받으며,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면 은행창구 혹은 ATM기에서 현금을 찾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생활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과 보험과 펀드에 가입했을 것이며, 주식 투자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대고 있을 것이다. 개인마다 금융권을 접하는 회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몇 군데의 금융권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가 바뀌고 있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수준과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서비스 역시 이에 맞추어 바뀌어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커다란 IT 기술 혁명을 접하고 익숙해진 소비자

들은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이 '직접 방문에 대한 불편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사이버 보험 청구,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이 출현했고, 언제든지 '인터넷이 연결된 곳' 이라면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선)인터넷 서비스는 사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는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웠다. '어디서나'의 부분은 결국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다.

직접 방문을 귀찮아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은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현대인들의 코드에 맞는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터넷 금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모바일 금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 증가 추세에 있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고 홈트레이딩으로 증권 계좌 관리를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과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은행에 직접 가야만 현금을 이체하고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금융 서비스였지만, 어느덧 돈을 직접 찾는 업무 이외의 대부분 기능은 인터넷 뱅킹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의 지위는 강화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를 열고 그곳에 예금과 적금을 넣고 찾을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전용 통장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에 대한 금융권의 개념 및 소비자의 인식 개념 역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05.07.28 공보 2005-7-39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0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 고객수는 2,290만명(3월말 대비 1.4% 증가)에 이르고 있으며, 2분기 중 인터넷

〈표 1〉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 추이

구분	04년 6월말	04년 9월말	04년 12월말	05년 3월말	05년 6월말
IC칩 기반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천명)	581	731	894	1,036	1,286
분기증가율(%)		25.9	22.1	15.9	24.0

자료 : 한국은행

뱅킹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1,042만건(1분기 대비 0.6% 증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이 이미 기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면, 모바일 뱅킹은 이제 막 준비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25만 7,00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분기의 일평균 21만1,000건 수준에 비해 21.6% 정도 늘어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IC칩 기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이동통신 3사의 BankON, M뱅크, K뱅크) 등록고객수는 04년 6월말 58만1,000명 수준이었으나, 05년 6월말 기준으로 128만 6,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모바일 뱅킹 환경이 구축돼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바일 뱅킹 이용항목별로 보면 조회서비스가 1일 20만 7,000건, 자금이체 서비스가 5만1,0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이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뱅킹 환경을 갖춘 단말기 보급 대비 실질 이용 빈도를 산정해 보면, 약 1/5 정도의 단말기에서 하루 한 번의 사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단말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추이

(단위: 천건, 억원, %)

	2004년 2분기중		2004년 3분기중		2004년 4분기중		2005년 1분기중		2005년 2분기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회서비스	108		122		149		169		207	
	(81.8)		(80.3)		(80.1)		(79.9)		(80.4)	
	<44.7>		<12.9>		<22.4>		<13.1>		<22.3>	
자금이체	24	236	30	299	37	400	43	461	51	538
	(18.2)		(19.7)		(19.9)		(20.1)		(19.6)	
	<62.2>	<55.8>	<24.5>	<26.8>	<23.8>	<34.1>	<14.7>	<15.1>	<18.7>	<16.7>
합계	132		152		186		211		257	
	(100.0)		(100.0)		(100.0)		(100.0)		(100.0)	
	<47.6>		<15.0>		<22.7>		<13.4>		<21.6>	

주 : ( )내는 모바일 뱅킹 중 비중, <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분기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입자나 이용현황 등의 부분에서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증가 추세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인구의 약 2~3% 정도가 IC칩 기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0.5% 정도의 사용자가 1일 1회 정도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제 막 시작점을 떠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금융 거래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IC칩

2003년 9월 LG텔레콤의 뱅크온 서비스를 시초로 국내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3월에는 SK텔레콤의 M뱅크와 KTF의 K뱅크가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뱅킹 환경이 조성됐다.

모바일 뱅킹이나 모바일 증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IC칩을 이용해 전용 접속을 하는 방법과 IC칩을 이용하지 않고 WAP이나 VM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모바일 금융이라 하면 모바일 단말기로 취급할 수 있는 후자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게 맞겠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증권 등의 개념에 있어서는 고객 사용 금융 정보를 보호하고 접속 편의성 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IC 칩이 장착되므로 엄밀히 말해 금융 IC칩의 장착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

## 모바일 핫토크

〈표 3〉 IC칩을 이용한 M뱅킹과 다른 방식의 뱅킹 서비스 비교표

구분	CHB M뱅킹	WAP방식	폰뱅킹	인터넷뱅킹
소요시간	1분 30초	5분~10분	3분	2분
통신요금	월 800원 무제한	80원~340원	70원	-
보안매체	보안카드, 스마트칩	보안카드	보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기타	이동성	이동성	상담기능	다양한 콘텐츠

자료 : 조흥은행 사이트

모바일 금융에서 사용하는 IC칩. 은행에서 이동통신사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빨간 선 안에 있는 부분을 떼어서 휴대전화 내부에 장착해 사용한다.

### 금융 IC칩에 대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위한 금융 IC칩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내장된 집적회로(IC)기억 소자 방식의 칩으로, 칩 속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나 IC칩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인증 번호) 숫자를 5회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융 IC칩을 사용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휴대성, 그리고 사용자별 개별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래하는 통장과 연계해 현금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신용카드 기능과 전자화폐 기능 등을 담을 수 있고, 휴대전화만으로도 교통카드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교통카드 등에서 사용하는 접촉식 인식과 함께 비접촉식 인식도 동시에 지원한다.

모바일 금융 기능 지원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해 보면 IC칩을 꽂을 수 있는 포켓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IC칩을 꽂고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휴대전화 자체가 은행과 증권사로 바뀐다.

### 모바일 금융 지원 폰이 있어야 한다

금융 IC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지원여부가 중요하다. 아무 휴대전화나 모두 모바일 뱅킹, 모바일 증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금융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에는 IC칩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자신의 폰이 모바일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이



금융IC칩의 위치

기능을 갖춘 폰들은 단말기에 '뱅크온', 'M.Bank', 'K.Bank' 등의 메뉴 버튼이 마련돼 있다. 아마 이런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배터리를 교체할 때 본체 뒷면에 작은 포켓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IC칩이 꽂히게 되는 공간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 IC칩을 여기에 꽂은 후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 자체가 은행과 증권사로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로 탈바꿈하게 된다.

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수시로 신규 모델 자료가 업데이트되므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는 게 정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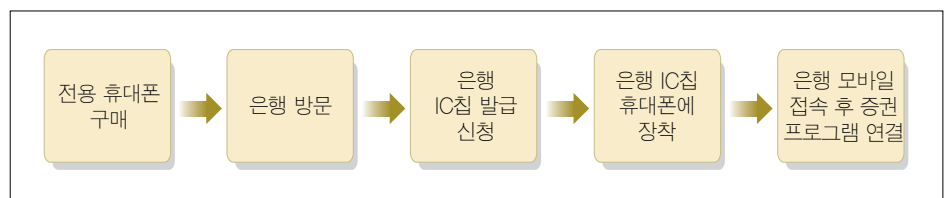
####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금융 관련 사이트〉

- SK텔레콤 : [chip.moneta.co.kr](http://chip.moneta.co.kr)
- KTF : [k-merce.magicn.com](http://k-merce.magicn.com)
- LG텔레콤 : [www.lgtelecom.com/services/detail/bankon/bankon\\_main.jsp](http://www.lgtelecom.com/services/detail/bankon/bankon_main.jsp)

### IC칩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IC칩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에 없

〈그림〉 IC 카드 발급 및 사용 환경 구축 절차



으면 IC칩을 발급받아도 무용지물이므로 휴대전화를 갖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지원 휴대전화에 있다면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은행 IC칩 발급 신청을 한다. 현금카드 기능을 위해 자신의 계좌와 연결이 되므로 통장을 지참하거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가도록 하며, 언제나 그렇듯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은행별 이동통신사별 IC칩이 발급된다. 발급 과정에서 PIN 번호를 입력하게 되며,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PIN 번호는 IC칩 장착 이후 강력한 사용자 인증 번호로 작동하며, 이 번호를 5회 이상 틀릴 경우 자동 잠금장치 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어떤 기능을 하나

IC칩의 기능은 은행 및 이동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 현금 카드 기능(현금 인출·계좌 이체·각종 조회)과 신용카드 기능(CD 혹은 ATM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및 계좌이체·결제내역조회·신용결제 등), 교통카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 증권사용 모바일 증권 기능과 각종 예매 기능, 외화환전·송금 기능, 환율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도 하여 굳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접속을 하지 않고서도 많은 부분의 금융 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 요금제는 어떻게 되나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금 부분이다.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금융 지원 폰을 부지불식 중에 구매했지만, 결국 IC칩을 장착하지 않고 모바일 금융도 모른 채 지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금제도의 부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까지 끝나면,

휴대전화로 은행에 접속하고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뱅킹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공히 월정액 800원 모델과 건별 요금 종량제 모델을 갖추고 있다. 월정액 800원이라는 금액이,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점과 대비해 보면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정액제라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인터넷이 여의치 않은 환경이라거나 외근 등 이동이 잦은 사용자라면 월 800원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수 있다.

모바일 증권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마다 요금 정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증권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월 정액 1,000~3,000원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월 정액 5,000원 내지 종량제 방식으로 증권 관련 데이터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LG텔레콤의 요금 제도가 SK텔레콤이나 KTF와 차별화되는 것은, LG텔레콤의 경우 월간 증권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3,000원을 받고, 데이터 요금을 정액제로 800원 정도 저렴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홈트레이딩에 비해 저렴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으나, 무선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PC방 요금보다 싸게 먹힌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이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모바일 금융

모바일 금융 처리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모바일 금융 기능 지원 단말기가 판매되고, 금융권에서는 IC칩의 보급과 CD 및 ATM기에 모바일 칩 인식 센서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취급업소에도 모바일 결제를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환경 구축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념을 적용시킨 상태이지만, 사실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 측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인터넷 금융이라는 개념이 불과 6~7년 만에 대중적으로 보급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모바일 금융 역시 쉽게 사용자 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분실에 대한 부분과 보안에 대한 것. 지갑 분실 경험보다 휴대

〈표 4〉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뱅킹 요금제도

구분	M뱅크	K·뱅크	뱅크온
뱅킹수수료 (계좌이체)	- 당행간 면제 - 타행송금 건당 600원 *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동일	- 당행간 면제 - 타행송금 건당 600원 *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동일	- 당행간 면제 - 타행송금 건당 600원 *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동일
무선데이터 요금	- M뱅크 전용요금제 8월 800원 정액제 (전용요금제 가입제) * 전용요금 미가입고객은 건별이용요금 청구	- K·뱅크 전용요금제 월 800원 정액제 (전용요금제 가입제) * 전용요금 미가입고객은 건별이용요금 청구	- 뱅크온 전용요금제 월 800원 정액제 (전용요금제 가입제) * 전용요금 미가입고객은 건별이용요금 청구

자료 : 국민은행

〈표 5〉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증권 요금제도

	업무내용	SKT	KTF·LGT
증권정보 서비스이용료	월정액제(2,000원) 또는 건당 과금제	월정액제(1,000원) 무조건 가입	월정액제(3,000원) 무조건 가입
데이터요금	월정액제(5,000원) 또는 패킷당 과금제 (일반 데이터 요금)	월정액제(5,000원) 또는 패킷당 과금제 (일반 데이터 요금)	월정액제(800원) 또는 패킷당 과금제

자료 : 국민은행

전화 분실 경험이 많은 사용자로서는 실제로 돈이 되는 무언가를 휴대전화에 넣어서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모바일 IC 칩을 통해 교통카드도 활용할 경우에는 PIN 인증 절차 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분실시 오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은 PIN과 이체비밀번호와 금융거래 코드포 등의 3단계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고, PIN 오류에 대한 잠금기능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용자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은행 지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문의가 많거나 하는 추세는 아니며, 주로 이용고객들은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신청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굳이 월 정액으로 뱅킹 기능 800원, 증권 기능 1,000원에서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휴대전화만 붙잡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용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일 듯하다.

모바일 금융이 인터넷 금융의 대체재로 작

용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이동이 잦고 정치가 없는 진정한 '모바일 라이프' 생활자(학생, 영업사원, 운전업 종사자 등) 층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금융이 이전 금융 형태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직접 방문의 수고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있지만 각종 수수료의 할인 정책도 한 몫 했음을 볼 때, 모바일 금융 역시 인터넷 금융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전 금융 서비스와는 다른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분명 m커머스 시장은 가능성이 있고 확대될 전망이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 최근 증권사와 금융권에서는 모

바일 금융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수수료 면제와 정액제 무료 서비스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재테크를 하면서 아직 사무실에서 눈치보면서 조회 거래하거나 PC방에 가거나

전화 주문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이제 모바일 금융을 통해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금융 단말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길 바란다. ☺

